

보도	2023.12.6.(수) 조간	배포	2023.12.5.(화)
----	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총괄팀	책임자	국 장	이길성	(02-3145-5700)
		담당자	팀 장	박성주	(02-3145-5680)

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「공정 금융」 확립 추진 계획

금융관행 전반을 금융소비자 눈높이에서 재검토하여
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.

- 주요 내용 -

-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 권익보다 회사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
 -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-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「공정 금융 추진위원회」를 설치하고
 - 불공정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 등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.
- 「공정 금융 추진위원회」는 현장과 소비자를 찾아가는 의견수렴,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 눈높이에서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적극 발굴·개선할 계획입니다.
 - 우선 금리·수수료 산정 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적극 발굴·개선하고
 - 아울러 금융플랫폼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살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

- 금융부문은 본질적으로 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력과 협상력의 차이가 상당하고, 이로 인해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공정하지 못한 처우를 받을 소지가 내재되어 있습니다.
 - 특히 이러한 불공정 소지는 금융거래 관행 곳곳에 녹아 있어 법규상 규율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.
- 이에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부문 내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.
 - 그러나 여전히 금융회사가 소비자 대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 또는 불공정한 금융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시각과 함께
 - 금융 현장 곳곳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- 특히 금리·수수료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행위 등이 여전하고
 - 금융의 디지털화 등으로 플랫폼의 지배력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,
 - 금융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특정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영업행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
 - 또한 회사 편의적 보험금 부지급 결정, 부당한 채권추심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저해하거나, 소비자의 권익보다 계열사·대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영업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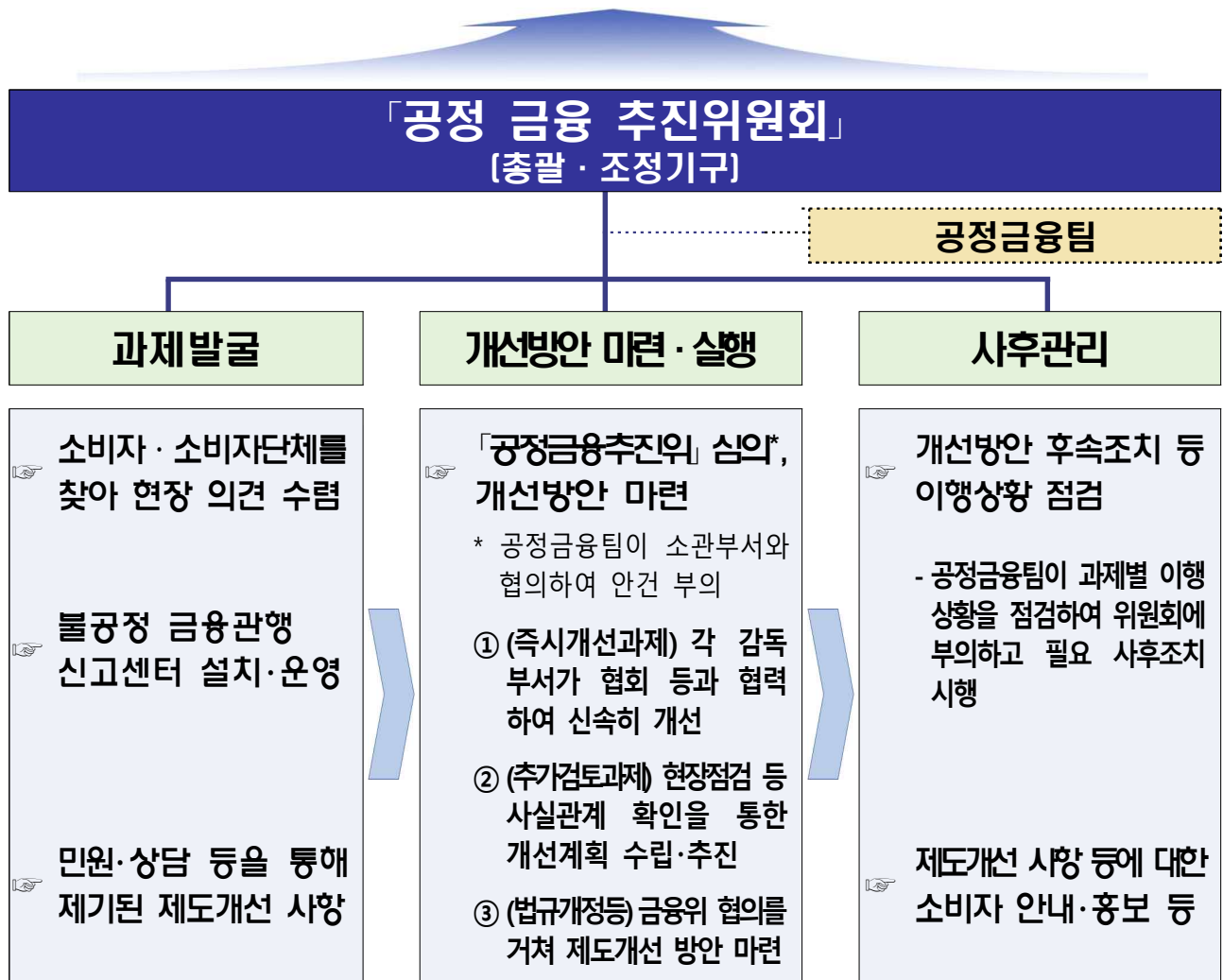
➡ 금융감독원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현행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하여 불공정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.

II

「공정 금융」 확립 추진 계획

- ◇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·조정기구로 「공정 금융 추진위원회*」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 지원 전담 조직(공정금융팀)을 신설
 - * 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주관하되 외부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
- ◇ ①[과제 발굴] - ②[개선방안 마련·실행] - ③[사후관리]의 3단계를 통해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실시
- ◇ 먼저 금리·수수료 관련 부당하게 비용을 산정·전가하거나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행위 등을 우선 추진과제로 집중 발굴·개선할 계획

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



- 먼저,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·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처에 「공정 금융 추진위원회」(위원장 : 금융소비자보호처장, 이하 「위원회」)를 설치하겠습니다.
 - 「위원회」는 불공정 금융관행 등 주요 개선과제별 제도개선 방안 등 필요 조치를 심의하는 한편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기구로서
 - 금융소비자보호처장(부원장)이 주재하고 금소처 소속 부원장보 및 안전별 감독·검사 소관 부원장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,
 -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권익 및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거래의 공정성 문제에 식견을 가진 학계 또는 언론계 인사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.
- 아울러 「위원회」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(「공정금융팀」)도 설치하여 자체적인 개선과제 발굴, 우선 추진과제 선정, 부서간 협의·조정, 성과관리 등 체계적 과제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
[참고]

「공정 금융 추진위원회」 설치(안)

- **위원** : 금융소비자보호처장(위원장),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(2), 안전 소관 부원장보, 외부위원(2)
- **간사** :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
- **기능** : 공정한 금융관행 확립 관련 주요 안건 심의, 추진상황 점검 등
- **운영방식** : 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 소집
- **운영기간** : '23.12.6. ~ '24.12.31.(잠정)

- 한편, 「위원회」 외부위원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병준 교수와 KBS 박종훈 기사를 위촉할 계획입니다.
- 이병준 교수는 소비자보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학 전문가로서 특히 금융의 디지털화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식견을 토대로 위원회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이 교수는 「위원회」 출범과 관련하여 “금융의 플랫폼화 등 금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,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못지 않게 공정성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”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.
- 박종훈 기자는 경제 전문 언론인이자 유튜브 인플루언서로서 경제 전반에 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이슈를 소비자 눈높이에서 쉽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.
- 박 기자는 “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이란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식에 맞는 일처리라고 생각한다”며, “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금융관행이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”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

2 과제 발굴

- ☑ 소비자 금융거래 과정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공정한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^①소비자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하고, ^②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, ^③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할 계획

① 소비자·소비자단체 등 현장을 찾아가는 의견수렴

- 소비자권익 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소비자 시각에서 불공정 소지가 있는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접수하기 위해
-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전담조직이 금융소비자(단체) 등과 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.

② 「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」 설치·운영

-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「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*」를 설치하여 금융관행에 관한 소비자의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이겠습니다.

* 집중적인 제보 접수 및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'2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상설화 여부는 운영 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

③ 민원·상담* 등을 통해 제기된 제도개선 과제 발굴

* 금융민원센터,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등

-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민원·상담 업무 수행 시 개별 민원 해결에 그치지 않고 민원에 내재된 불공정 관행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- 특히, 관계 법규 등에 비추어 불법·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불공정하게 느껴질 여지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과제화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.
- 아울러 각 업권 감독·검사국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파악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소비자 시각에서 전향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.

3 개선방안 마련·실행

- 공정금융 추진 전담 조직인 '공정금융팀'이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소관부서* 검토 등을 거쳐 「위원회」에 부의하고

* 사안에 따라 소관 감독·검사국 또는 금소처 소관부서 등

- 「위원회」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개선방안은 금감원 내 관련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

- ① [즉시개선 과제] 먼저,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안의 경우 각 감독국이 업권별 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불공정 관행 개선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- ② **[추가검토 과제]**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, 이해관계자 의견수렴, 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소관부서가 현장점검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.
- ③ **[법규개정 등 필요과제]**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.

4 사후관리

- 한편, 「위원회」는 각 과제별 소관부서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.
 - ‘공정금융팀’이 매월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「위원회」에 보고하여 추가조치 필요사항을 논의하는 등 각 개선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아울러 주요 추진과제 및 제도개선 결과는 금융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수시로 보도자료 등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.

III 향후 계획

- 금일(12.6.)부터 「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」 운영이 시작됩니다.
 - 누구든지 금융회사 또는 금융플랫폼 등의 불공정 금융관행에 관하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*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* fss.or.kr > 민원·신고 >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
- '23.12월 중 「공정 금융 추진위원회」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및 운영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
 - 금리·수수료 등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'24.1월 중 「위원회」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입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